

# 광주·전남 특별시교육감, 6명 출사표

## 5만3300명 조직 초대 교육감에 관심 광주 2명으로 압축·전남 예비후보 6명 선거 본격화되면 교육통합 변화 쟁점

21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올해 초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특별법 통과까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별도 선거가 예상됐으나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감도 특별시교육감 1명만 선출해야 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달 내 통과된다면 6월3일 지방선거까지 선거운동이 3개월에 불과해 예비후보들의 불출마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권역이 두 배 늘어난 데다 대도시인 광주와 농어촌권인 전남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선거공약과 전략을 준비해야 하지

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늘어난 선거비용도 출마에 현실적인 제약이다. 1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수 있어 지지율이 저조한 예비후보는 출마할 엄두를 내지 못할 수 있다.

통합 특별시교육감 출마 예비후보는 광주 2명, 전남 6명으로 압축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행정통합 국면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두 교육감 모두 다양한 행정통합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며 향후 교육행정 변화를 설명하는 등 인지도 향상과 주민 접촉도를 늘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이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광주 출판기념회에 이어 21일에는 전남 순천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전남지역 세 확장을 모색한다.

김 교육감도 지난 7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21일 나주, 28일 목포에서 복권서트를 개최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광주에서는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 후보로 추대돼 통합교육감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 전 지부장은 21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가장 전남·광주 특별시교육감 선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해왔던 예비후보들은 통합 특별시교육감 출마로 선거전략을 급진화하고 있다. 인구 320만 명에 교육계 종사자 5만3300여 명을 관할하는 특별시교육청 초대 수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 광주교육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통합교육감의 비전을 발표한다.

전남에서는 강숙영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강 전 장학관과 김 전 교육감, 장 전 지부장은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강 전 장학관은 국가 책임 교육, 교권 재

확립,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등을 제시하며 최초 여성교육감에 도전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공교육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장 전 지부장은 전교조 전국 정책실장으로 학교 민주화·학생 인권보장 정책을 주도해 온 경험이 있다.

고 교수는 지난 12일 통합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거문중학교 교장 출신인 최 전 부회장은 정통파 교육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달 내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정책 변화를 두고 후보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통합시 학군제 변동 여부, 지역별 예산 배분, 공무원 인사정책, 주청사 지정, 조직 구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사진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성홍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 후보.

사진=SNS캡처

## 광주·전남통합교육감 선거열기 고조... 연이은 출판기념회

### 이정선·김대중·정성홍 출판기념회 잇따라

### 교육 종사자 5만3300명 초대 통합교육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6월3일 통합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하는 등 교육감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전남 인구 320만 명에 교육계 종사자 5만3300여 명을 관할하는 특별시교육청 초대 수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6·3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광주 특별시교육감 출마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거나 본격적인 열기를 알리기에 나섰다.

행정통합에 따라 광주·전남 전체가 단일 선거권이 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현재 광주·전남도교육감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행정통합 국면에서 공식적인 통합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합법적인 행사를 이용하는 현직 프리미엄이다.

두 교육감은 연이은 출판기념회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데 이어 21일에는 고향

인 전남 순천에서도 기념회를 열고 세를 확장했다.

이 교육감은 행사에서 "전남과 광주는 교육으로 연결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며 "전남·광주 어디서든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기본교육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도 지난 7일 전남 순천에서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21일 나주, 28일 목포에서 복권서트를 개최한다.

김 교육감은 21일 행사에서 "전남과 광주의 교육통합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남의 2030교실과 글로벌 미래교육이 광주로 확대되면 학생들에게는 더 다양한 미래가 열리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시민공

천위원회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가 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지난 21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정 전 지부장은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후보로서 광주 교육 정상화의 출발선에 섰다"며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무능·불통·비리 교육행정과 정면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고두갑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교수는 "20년 경제학자로서 치밀한 진단과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광주와 전남의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통합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는 강숙영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 공직자 부동산비위 제보 받는다

### 인사처,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 연내 신설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허위·은닉 사례를 보다 촘촘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으로 공직윤리시스템(PETI) 사이트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PETI는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인사처는 이 시스템을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제보 창구를 두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재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또는 과태료, 경고 등의 처

분을 받게 된다. 또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차명 보유하는 등 부적절하게 재산을 증식한 행위를 전부 가려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일대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은 부동산 취득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신규 등록자에 한정돼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과거에 전세를 끼고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두거나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과거에 투기성으로 매입한 고위공직자들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시스

제 27회 — 구례에 피어하는 노란 설렘

# 구례 산수유꽃 축제

초대장  
구례 산수유꽃 축제

산수유가 깨우는 봄, 그 찬란한 시작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6. 3. 14.(토) - 3. 22.(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개막식  
일시 : 2026. 3. 14.(토) 오후 3시  
장소 : 산수유꽃축제 상설무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상리길 45)

• 손태진과 함께 ~

주최/주관

후원